



# 제주 기름값은 왜 다른곳보다 비싸지?

### 부탄 평균가 1위... 주유소 석유류 마진도 최고, '민간감시단' 휘발유·LPG 판매가 조사 확대

가격·유통구조 분석... 조사결과 분기별로 공개

도내 주택 난방과 차량 연료 등 LPG와 석유제품의 가격·유통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감시단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LPG 용기 판매소 부탄 평균 판매가격은 kg당 3145.1원으로

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프로판 평균 판매가격은 kg당 2654.4원으로 전국 2위를 나타냈다. 제주 LPG 자동차 충전소 부탄 평균 판매가격 또한 전국 상위권으로 L당 1115.2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민간감시단을 통해 LPG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유통구조 분석과 가격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LPG와 관련 국제 가격, 충전소, 판매소에 이르는 가격 구조와 국제 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경

격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고, LPG 정상 판매 조건 기준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비교·검증할 예정이다.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시한 지역별, 주유소별 경유 및 휘발유 가격을 비교하고 농협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 가격 변화를 조사한다. 또 도내 석유 저장용량 소진 주기에 따른 가격 변화를 점검하고 석유 관련법 개정 시 지역별 공급가격 공개에 따라 주유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분기별로 공개된다. 가장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의 가격 정보도 두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된다.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도내 경

유와 휘발유에 대한 유통·가격 조사 결과 판매대리점과 주유소 간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와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로 석유 제품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 지난해 10월과 11월 도내 주유소(대리점 포함)의 유통비용과 마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 알뜰주유소의 경우 경유 판매 가격이 조사가 이뤄진 9주 중 7주에 걸쳐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LPG와 석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치고 빠지기 싹쓸이 조업 '꼼짝마'

### 해경, 3-4월 불법조업 특별단속... 함정 집중투입

### 작년 19척 불법조업 적발

제주 어족 자원을 위협하는 불법 조업에 대해 해경이 2개월 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부터 2개월간 조업 질서 확립과 제주바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조업 금지 구역에 침입해 '치고 빠지기식'으로 싹쓸이 조업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대·소형 선망 어선의 경우 매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제주 본도로부터 74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돼 있다.

제주해경은 조업에 나선 어선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해 사전 분석하고 감시 취약 시간 때 함정과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사항은 ▷조업 구역 위반 ▷선망 은폐 행위 ▷불법 어구 사용 행위 여부 등이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 자원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8건에 19척이다. 이중 2-3월 집중단속 기간에만 4건이 적발됐다.

조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망 은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도영기자



“제들이 돌아왔다” 지난 2013년 7월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들이’가 2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자유롭게 수영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제들이’의 등지느러미에 새겨진 1번 표식이 선명하다.

# “다른지역 경력 인정하라” 소방공무원 급속심사 요구

### 법원 “제주도 무응답 위법”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급속 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소방관 A 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의를 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다른 시도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승진 급속 연수 5년을 채웠음에도 제주도가 승진 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과 자신들의 급속 임용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원고들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 현직 도의원 만취 음주운전 적발

### 경찰 음주측정결과 0.183%

현직 제주도의회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K(31)의원을 도로교통법 위

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K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 방면으로 자신의 차량을 3~4k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K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83%였다. K의원은 술을 마시고 귀가 도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K의원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저기까지 건너봐!”... “못갈것 같아?”

### 10대 지인 꼬드김에 바다수영하다 해경에 구조

호기심에 야간 바다수영에 나선 10대가 힘이 빠져 위기에 처했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서귀포해안 7부두 인근 바다에 빠진 A군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군은 서귀포항 6부두에서 낚시를 하던 중 건너편

8부두까지 수영을 해보라는 지인의 말에 입수해 수영하던 중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부두안벽에 매달려 있는 A군을 구조했다.

A군은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영기자

# 화물차 열었더니 불법체류 태국인 11명

### 관광객으로 입도 후 제주 빠져나가려다 적발

어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 11명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제주항 어선안전조업국 앞 부두에서 어선을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이탈하려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 11명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제주항에서 목포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선을 섭외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주항 어선 부두에 잠복 중 1t 화물차 화물칸에 은신하고 있던 태국인 11명(남 5명, 여 6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타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제주도 밖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영기자

## 2023 고소득 추천 묘목

|            |                          |  |
|------------|--------------------------|--|
| <b>두름</b>  | <b>민두름 참두름</b>           | 가시 없는 민두름, 참두름, 정강두름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
| <b>포도</b>  | <b>루비로망</b>              |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
| <b>감</b>   | <b>감풍, 원추 테추단감, 슈퍼대봉</b> | 신물중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인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
| <b>임나무</b> | <b>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b>     | 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옴, 효능이 같습니다.                 |
| <b>호두</b>  | <b>신품종 호두</b>            |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갑을농원**    묘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25 / 농협 312-3121-7676-91(매일주·정음화)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맹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종자업등록번호 제 18-서귀포-2021-20-02호

## 우량 감귤묘목

우수한 품질의 감귤묘목만 생산하여 직접 판매합니다

레드향 · 천혜향 · 황금향  
한라봉 · 궁천  
오하라베니 · 조경용 하귤

※ 현장방문 환영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68-168

제주감귤묘목영농조합법인  
010.7204.1286

##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방위 형상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기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할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방위 형상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계장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푸른지계 장원농장**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